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1988년故김수환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재단입니다.



VOL.244
2023 09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한 줌의 쌀 예수님 뭉으로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어도
아이들의 미소는
참 해맑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이 아이들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헌미헌금을 통해 지구촌 빈곤국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6개국 9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헌미헌금
후원하기



헌미헌금 기부하기

우리은행 1005-684-077777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무통장 송금시 입금자명 앞에 '헌미'를 붙여주세요 (ex.헌미홍길동)

문의 : 02-774-3488 * 9월 17일 서울대교구 2차헌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미헌금으로 모여진 정성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한 줌의 쌀’로 기적을 이어주세요!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곳으로, 지속되는 자연 피해와 가뭄으로 인해 현재 국민의 70%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피아나란추아에 살고 있는 9살 올가는 라우나비꾸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올가는 학교에 가는게 너무 행복합니다. 학교에 가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원을 통해 수녀님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에 가지 못해 또 다시 밥을 먹지 못할까 걱정하던 올가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본부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하루 1kg씩 매일 먹을 수 있도록 30kg의 쌀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경제적 부담으로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상황에 있었던 올가의 언니도 본부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등 교육 과정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가의 가족은 멀리 한국에서 전해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 주신 한 줌의 쌀은 지구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한끼의 식사가 됩니다. 공동의 집, 지구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헌미헌금으로 모아진 기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6개국 9개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량, 물, 보건의료, 교육,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헌미헌금 봉헌의 달



헌미헌금운동 초기 스티커

박해시절 때 끼니 한 줌의 쌀을 모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던 '헌미'는 우리 교회가 간직해온 아름다운 전통의 하나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나눔운동인 '헌미헌금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684-077777
- 예 금 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 의 : 02-774-3488

무통장 송금시 입금자명 앞에 '헌미'를 붙여주세요 (ex.헌미홍길동)



헌미헌금 기부하기

명동밥집

“명동밥집에서 깨달은 것” -거리의 예수님을 만나다



이현수 스테파노 학사

저는 전주교구 신학생으로서 교구와 본당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존중과 사랑과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당의 품을 떠나 세상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주교구 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명동밥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설렘을 가지고 한 첫 출근에 명동밥집 기도문의 마지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의 예수님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하세요’ 순간 ‘멈칫’ 하였고, ‘뜨끔’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출근길에 만났던 많은 이들 중에 과연 한 명이라도 예수님으로 마주하였는가? 안 했고,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명동밥집을 찾아오는 손님 모두를 예수님으로 맞이하리라 다짐을 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하루를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다른 봉사자님들은 제게 모두 선배님이며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에겐 없던 세심한 배려, 말 한마디에서도 느껴

지는 따스함, 몸에서 배어 나오는 존중 등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저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시작은 '나'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해나가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을 곱씹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로부터의 시작은 제 안에 하느님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동밥집에서 만난 모든 분들은 제가 지난 4년간 학교에서 공부만 하였던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곧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신학생으로 살며 그간 무엇을 배우고 살아왔던 것인가 싶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명동밥집에서 보낸 올해 봄은 유난히도 따스했습니다. 훈김 어린 봄바람처럼 다가와 제 안에 다시금 새순을 움트게 해주었습니다. 봉사하려 온 저는 되려 봉사를 받았고, 가까이서 배웠고 매 순간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명동밥집에서 받은 따스한 훈김 잃지 않고 기쁘게 하느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명동밥집 후원하기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후원 문의 : 02-774-3488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문의 : www.mdbj.or.kr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바로 기부하기



한마음한몸 정기·일시 후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마음한몸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기, 일시후원 참여신청 및 문의 02)774-3488

8월의 새로운 한마음한몸 나눔 가족입니다.

(2023년 8월 1일 ~ 8월 31일 기준)

일반후원자 강호원 | 고인호 사도요한 | 고재희 베드로 | 김경순 데레사 | 김경희 루시아 | 김기찬 니콜라오 | 김대철 | 김마리아 | 김미서 | 김미숙 데레사 | 김민서 | 김민혜 | 김서연 | 김안숙 | 김영민 스테파노 | 김원섭 대건안드레아 | 김민숙 아가다 마리아 | 김재유 이아 | 김주원 야고보 | 김진희 | 김창길 베드로 | 김현용 율리오 | 김홍희 | 노희정 미카엘라 | 텔라이프 | 류호준 | 박현규 야고보 | 서용재 | 손혜림 마리아 | 신수정 | 신영혜 | 엄혜조 | 윤경림 미카엘라 | 윤민용 | 윤효진 | 이경아 레지나 | 이민혁 안드레아 | 이병순 | 이슬민 | 이신애 아델라 | 이용훈 마테오 | 이원재 | 이준서 | 이혁재 | 장우영 | 장학수 베드로 | 정수경 레아 | 정예 | 정정순 마리아 | 정택수 요셉 | 정혜승 미카엘라 | 정희숙 아나타시아 | 조원규 | 조종희 | 조혜숙 스텔라 | 지서안 | 지서윤 스텔라 | 차지선 베로니카 | 최경란 | 최광호 | 최규원 | 최연수 | 최연정 | 표다예 | 하중원 명동법집 (사)경남어류양식협회 | 공희숙 | 김기정 토마스 | 김영민 프란치스코 | 김진경 베로니카 | 김현용 율리오 | 김희선 꽃담플라워(김대현) | 라종환 | 박건희 로사 | 박영옥 | 박향남 루시아 | 배병철 레오 | 서용재 | 손영일 알렉산델 | 양효은 루치아 | 유성선 | 이희순 세실리아 | 전두병 요아킴 | 정지희 마리아 | 정혜련 캐서린 | 최상덕 | 최연정 | 태철원 아녜스

[일반후원자] 65명 [명동법집] 24명 총 89명



생애주기별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생애주기별기부'는 생애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2023년 8월1일-8월31일 입금일 기준)

첫번째 기부 강한결 | 국해운 | 김도유 | 김도하 | 오하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임세아 마리아

아홉번째 기부 광자우 | 김현우 사도요한

두번째 기부 고해리 스텔라 | 손주하 | 신승현 스테파노 | 양지안 | 오하린 | 유효진 요한바오로 | 이선우 | 이에원 안나

열번째 기부 권승후 아론 | 김은제 안젤라 | 이수하 글라라 | 장건우 사도요한 | 한스텔라 스텔라

세번째 기부 광선우 | 김예주 소피아 | 김재희 미카엘 | 나윤우 요셉 | 손유찬 | 손준민 안토니오 | 송이진 아우구스티노 | 이로이 프란치스코 | 장서우 안젤라 | 천수현 안토니오 | 허태훈 마테오

열한번째 기부 노연아 | 이종현 대건안드레아 | 황승헌 루피나

네번째 기부 김가을 | 박시환 | 설하준 | 안예진 헬레나 | 이재이 이나시오 | 이현경 헬레나 | 이항 예로니모 | 주이안 미카엘 | 추이준 루카

열네번째 기부 남연우

열다섯번째 기부 김동하 다니엘

다섯번째 기부 권은서 안나 | 김연우 미카엘라 | 양진혁 미카엘 | 장하진 헬레나 | 지민준

열아홉번째 기부 조호연 베르나르도

서른번째 기부 고민음

여섯번째 기부 권유주 권희바르바라 | 윤우진 | 손준혁 율리오 | 이민희 요한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김명규 & 최인경 미카엘라 | 배주환 & 이종은 크리스티나 | 이현우 & 이영미 마리아 안나 | 장영록 레오 & 백민희 마리아안젤라

일곱번째 기부 김시우 도미니코 | 김재승 이나시오 | 김재아 예바 | 명다솜 데레사 | 신유진 도미니코 | 이재원 라헬 | 허윤우 베로니카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권정숙 수산나 | 故김면수 유스티노 | 故김재균 로사 | 故 이상남

여덟번째 기부 권지호 이레네 | 김민서 클레어 | 박라온 아우로라 | 이서연 클라우디아 | 이재민

기념일 감사 기부 (주)목동라테라산후조리원 | 이로하 | 이민선 리디아 | 한시윤 로사리아 | 김지민 아셀라 | 서유리 클라우디아 | 황윤정 아녜스 | 김우중 로렌조 | 이수빈 안드레아 | 남일우 그레고리아 | 홍신아 도미니카 | 김수경 마리아

총 89명

유가족 피정 모 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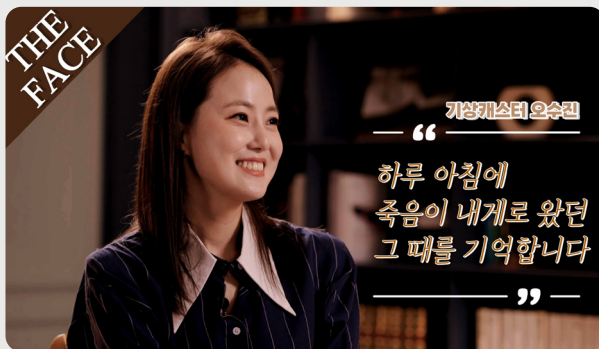
- 대상 :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날짜 : 10월 7일 ~ 8일(1박2일)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집

- 인원 : 20명 (선착순 접수후 마감)
신청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문의 : 02-727-2495

THE FACE

Search 더페이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하루 아침에 죽음이 내게로 왔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 기상캐스터 오수진 아가다



당신의 오늘은 맑음? 아니면 흐림인가요?

KBS 기상캐스터로 활약하는 오수진 아가다 님. 그녀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심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얻은 만큼,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진 님은 현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생명 나눔의 송고함과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나눔이 나눔을 낳는 기적을 함께 느껴보세요.

'내 인생의 나눔'이라는 주제의 토크 콘텐츠 '더 페이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새로운 이야기가 게시되니 유튜브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검색하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